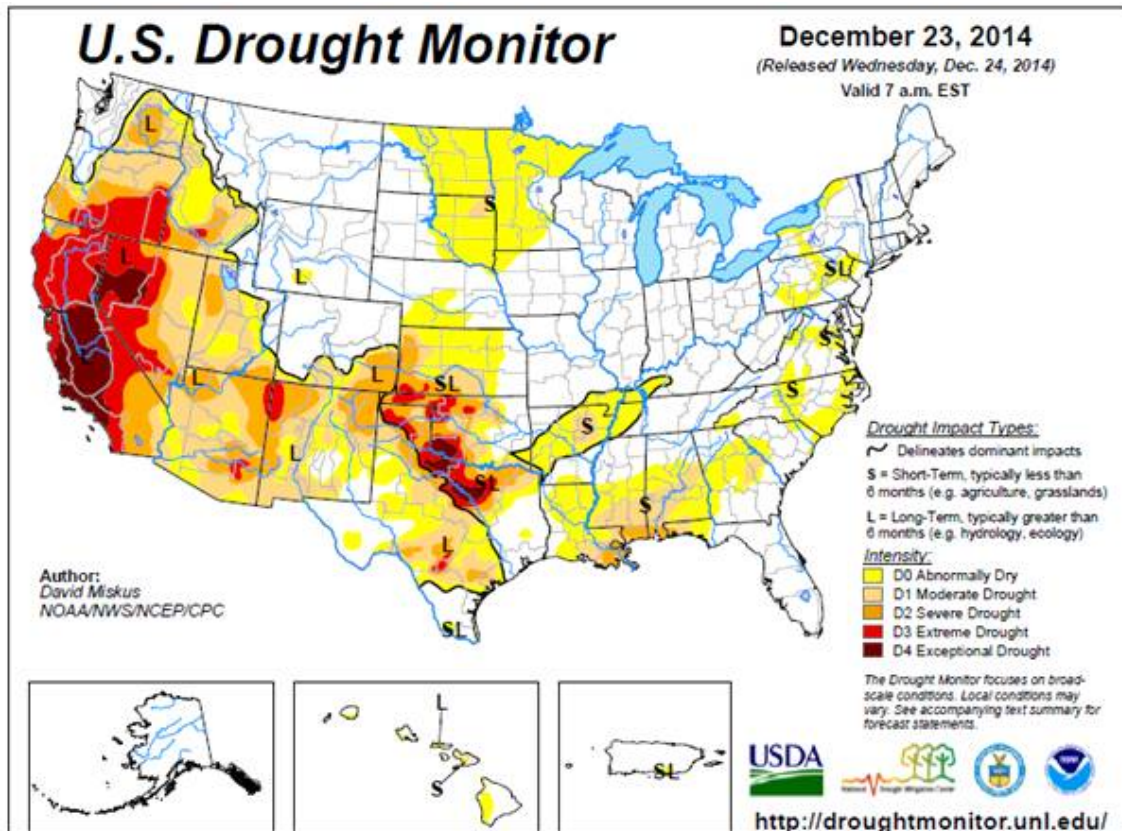


12월 3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52)

□ 미국 기후 현황(12/21~12/27)



중요한 강수량이 북서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캘리포니아의 우기가 종료되었다. 태평양 북서쪽의 주간 총 강수량은 4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으며 북부 록키산맥과 북서부 산간내륙지역에서는 2-4인치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북부와 중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지만, 대체로 건조한 날씨는 남부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사막지역에 팽배하였다.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대평원에 발생한 일부 불안정한 기상현상은 약 한달 간 강력하고 한랭한 대기를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효과적인 눈이 내리게 하였다. 주말경에는 대평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북서부 지역에서 새롭게 눈이 내렸으며, 가을밀을 절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 후반에 내린 눈은 남부 오클라호마와 북부 텍사스까지 내린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체로 적은 양의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온난한 날씨가 발생하였으며, 중서부 상단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10-20°F가 높았다. 사실상, 3주 연속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호 주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발생하였고, 땅이 질어진 탓에 옥수수의 마지막

수확을 위한 노력에 방해가 되었다. 한편, 남동부와 대서양 연안 인근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렸다. 이 비로 인해 단기적으로 발생한 가뭄에 대한 염려가 완화되었지만,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고 국지적으로 홍수가 발생하였다. 중부 걸프 연안에서 캐롤라이나 지역의 경우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총 강수량은 4인치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3-24일에는 많은 비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하였다.

□ 농업 현황 요약(12/22~12/28)

전국적으로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벨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9°F 이상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록키산맥을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균보다 낮았으며, 뉴멕시코에서 몬태나와 북부 대평원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로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간 총 강수량은 2인치 보다 낮았지만, 예외적으로 남동부와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경우 4인치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12/21~12/27)

■ 유럽: 비가 내리고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는 주요 농업지역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곡물과 유채에 도움이 되었다. 가장 많은 강수량(25-100 mm)을 기록한 곳은 북부지역이며, 주로 영국과 북부 독일, 폴란드가 이에 속한다. 발칸 반도 지역의 강수량은 5-25mm를 기록하였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페인 남부와 중부지역에서는 더욱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게 유지되었으며, 평년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4-7°C 높음)을 기록한 곳은 동부 유럽지역이다. 그러나 강력한 한랭전선이 관통하며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이 더욱 추워졌으며, 폴란드, 벨라루스, 발틱 주의 밤 최저기온은 영하 10°C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추워진 날씨로 인해,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겨울 곡물을 보호하던 스노우 커버가 형성되었다. 스페인과 남부 프랑스의 경우 기온이 평년대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북부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기온이 1-2°C 이상 높았다. 이 지역에서도 대체로 국지적으로 적은 양의 눈이 내렸다.

■ 구소련(서부): 많은 지역에서 평년대비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동면중인 작물들은 영하의 기온에 따른 피해를 경감시켰으나 남부 지역의 경우 계절적인 스노우 커버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남부 러시아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5°C 이상 높았으며, 타 지역의 주간 기온은 1-4°C 정도 높았다. 많은 지역에서 눈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평년대비 따뜻한 날씨는 동면중인 작물들의 겨울철 견고함을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겨울철 작물들의 동해에 따른 피해가 존재하였다. 한편, 남부 재배작물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10-20mm가 기록되어 수분 보유량을 충족시켜 주었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 눈이 내렸다.

■ 호주: 남부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의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며, 면화 및 수수와 같은 여름작물들의 생육 발달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저수량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저수량의 수준을 신장시켰다. 그러나 최근 내린 효과적인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저수지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기온은 대체로 평년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온현상에 따른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북동부 지역에서는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지만, 비가 점점 소강상태에 접어든 탓에 여름작물과 가을밀 수확 최종 단계에 도움이 되었다. Santiago del Estero에서 Corrientes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100mm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100mm 이상) 북부 Santa Fe 동부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면화의 파종 마지막 단계가 지연되었다. 이와 반대로, 남부와 서부 생산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줄어들었으며, La Pampa와 Buenos Aires 지역의 총 강수량은 10mm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량 또는 적당량의 비(10-25mm)는 Cordoba 지역에서 작물의 발아를 위한 표토층의 수분을 유지시켜주었으며, 최근 몇 주간 평년대비 적은 강수량을 기록한 이후 내린 추가적인 비는 여름 곡물과 유채의 수립이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서늘한 날씨(낮 최고 기온이 20°C 초·중반)가 주 초반 지배적이었지만, 따뜻한 날씨(낮 최고 기온이 30°C 초반-40°C 초반)가 주 후반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주간 기온은 남부 재배 지역인 Buenos Aires의 경우 평년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평년대비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2월 23일 기준 파종된 옥수수는 73%p이었으며, 전년동기 대비(76%p) 낮은 수준이다. 대두 파종률 역시 82%p로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이며, 밀의 수확률은 75%p로 전년동기 대비 87%p인 것과 대비된다.

■ 브라질: 넓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대두와 기타 여름작물의 충분한 저수 수준을 적당히 유지시켜주었다. Mato Grosso 남부에서 Rio Grande do Sul 지역에 걸쳐 총 강수량이 50m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 있는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골고루 분배되었다. 효과적인 강수량이 동부지역에서 남부 Minas Gerais로 확산되었으며, 커피와 사탕수수 및 지역적으로 중요한 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충족시켜 주었다. 한편, 더욱 건조한 날씨가 동부 연안지역에 발생하였으며, Espirito Santo 에서 북동부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재배중인 사탕수수 수확은 계속 진행되었다. 대두와 면화 재배지역인 서부 Bahia와 북부 Maranhao의 강수량은 점차 줄어들었고, 지난주 100mm 이상 비가 내렸으나, 이번 주 총 강수량은 25mm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았기 때문(낮 최고 기온이 30°C 중반)에 중부와 남부 브라질(Mato Grosso에서 Sao Paulo와 Minas Gerais)에서는 작물들의 높은 관개 요구가 발생하였다.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서늘한 날씨는 주 초반 아르헨티나에서 우루과이로 이어졌으며, 평년대비 기온이 3°C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말경에는 더욱 따뜻한 날씨(낮 최고 기온이 30°C 초·중반)로 회귀하였으며, 옥수수와 대두의 성장을 촉진하였다.